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문제지는 EBS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윤리와 사상 정답

1	③	2	④	3	③	4	⑤	5	②
6	③	7	④	8	⑤	9	②	10	①
11	①	12	②	13	③	14	⑤	15	④
16	⑤	17	③	18	①	19	①	20	②

윤리와 사상 해설

- [출제의도] 맹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장 편지를 쓴 사상가는 맹자이다. 맹자는 사사로운 욕심과 후천적인 환경으로 인해 타고난 선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보았으며, 도덕적 기개 [浩然之氣]를 기르기 위해 의로운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개화사상과 동학사상 비교하기**
같은 동도서기론자 신기선, 을은 동학사상이 최시형이다. 신기선은 이용후생의 관점에서 유교적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서양의 과학기술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시형은 천지 만물이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간을 비롯한 천지 만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학파 사상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을은 아우렐리우스이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선은 쾌락이라고 보았으며, 이성적 숙고를 통해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해야 평정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따를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기호(嗜好)를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이 선행 혹은 악행을 선택할 수 있는 자주지권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인간의 욕구를 생존과 도덕적 삶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구분하면서 좋은 자체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계에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음이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고 보면서 인간의 좋음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 안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이성적 활동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해야만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선인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하기**
가장 대화의 갑은 프로타고라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가치 판단이 개인의 감각 경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라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는 가치 판단의 보편적 기준과 절대적 진리가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영혼이 훌륭한 상태가 되도록 성찰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 격물이라고 보았으며, 앎과 실천은 항상 서로를 의지하므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양지를 각각의 사물에 실현하는 것이 격물이라고 보았으며, 앎과 실천이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는 신은 모든 것의 초월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원인이며, 신을 비롯한 모든 것은 필연적 인과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인간은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보며,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순자와 노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순자, 을은 노자이다. 순자는 군주가 예(禮)를 기준으로 백성의 무분별한 욕망을 조절하고 악한 성정(性情)을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자는 현명한 자를 숭상하기보다는 무위의 다스림을 통해 백성들이 무지(無知)와 무욕(無欲)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루소와 슈페터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루소, 을은 슈페터이다. 루소는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을 통해 시민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슈페터는 민주주의를 정치인들이 시민의 표를 얻고자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았으며, 시민의 역할을 지도자를 선출하는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지눌과 혜능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지눌, 을은 혜능이다. 지눌은 불성을 단박에 자각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쌓인 습기(習氣)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없애기 위해 선정과 지혜를 지속적으로 닦아야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혜능은 지식 공부나 점진적 수행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본성이 부처임을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닦을 수 있다는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흠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흠이다. 흠은 이성이나 감정이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모든 사람들이 공감의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행위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여된 상태라고 보았으며, 인간의 육체보다는 영혼을, 영혼보다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 질서 잡힌 사랑이라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인간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자연법은 실정법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으며, 완전한 행복은 신의 은총에 의해 종교적 덕을 추구함으로써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공화주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의 강연자는 공화주의 사상이 비롤리이다. 비롤리는 자의적 권력에 의한 지배가 없는 자유를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의 지배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애국심이란 공

- 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만들어 가는 특정 공화국과 동료 시민에 대한 애착과 태도라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로크와 홉스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로크, 을은 홉스이다. 로크는 사회 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해 국가 권력의 분립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입법권은 시민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홉스는 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부정의, 소유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보편적 도덕 법칙을 원리로 삼는 의지는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보았으며,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언제나 자율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신처럼 완전한 선의지를 지닌 존재에게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선의지와 경향성을 함께 지닌 존재인 인간에게는 도덕 법칙이 의무로 부과되어 명령의 형식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분별적 지식을 버리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조용히 앉아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모든 것을 잊는 수양인 좌망(坐忘)과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수양인 심재(心齋)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듀이와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듀이, 을은 밀이다. 듀이는 지식을 문제 해결에 유용한 도구라고 보았으며, 고정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인간에게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 자신의 선을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자기희생도 사회적 유용성을 증진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는 도덕적 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하기**
제시문 (가)의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이(理)와 기(氣)가 모두 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단과 칠정(七情)은 각기 다른 연원[所從來]을 가진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이는 오직 기만 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단은 칠정에 포함되는 감정으로서 칠정 중 선한 부분을 지칭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출제의도] 스미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스미스이다.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가 사회의 이익 증대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보았으며, 자유방임주의의 입장에서 국부를 증가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